

이 재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기억 이미지를 통한 조형표현 연구

- 염색 작품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과

류 경 숙

## 논문 개요

인간의 의식은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독특한 기억들을 저장하고 있으며 그 기억은 인간의 생활의식, 그리고 그 표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술가들 또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들의 기억을 근본으로 해서 작품을 표현하며 이러한 예술세계는 과거를 통해 사회, 문화, 역사 속에서 그들만이 가진 기억축적의 결과인 것이다.

본 논문은 기억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작품의 제작배경과 작품에 나타난 내용적, 조형적 측면을 연구 분석하여 본인의 작품이 나아갈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억에 대한 관념은 본인이 속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형성되고 과거를 판단하고 현재를 결정지을 수 있게 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역동적 기억이다.

또한 감각을 통한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감정과 정서는 기억에 의해 비롯된다고 보고 내면에 잠재된 기억의 형상화를 통해 새로운 기억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정지된 장면으로의 기억이 아닌 무의식속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이미지를 상징화하였으며 선과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적 구성을 통하여 시간성, 공간성을 부여하고 연속적 변화의 의식으로서의 기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제작된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 기억의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기억을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물로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 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2
II. 본 론 .....	3
1. 기억의 고찰 .....	3
1) 기억의 의미 .....	3
2) 기억의 표출 .....	5
3) 예술에 있어서의 기억의 상징성 .....	8
2. 이미지의 조형적 표현 .....	11
3. 작품제작 과정 및 설명 .....	12
1) 작품제작 과정 .....	12
2) 작품 설명 .....	14
III. 결 론 .....	31

## 참 고 도 판

## 참 고 문 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 1】 기억(記憶)-시간 속으로, 견섬유(silk), 산성염료, 78×99cm, 2003…14
- 【작품 2】 잔상(殘像), 견섬유(silk), 산성염료, 94×138cm, 2003 …………… 16
- 【작품 3】 기억의 영속, 견섬유(silk), 산성염료, 80×100cm, 2003 …………… 18
- 【작품 4】 화영연화(花樣年華), 견섬유(silk), 산성염료, 175×260cm, 2004 …… 20
- 【작품 5】 흔적(痕迹), 견섬유(silk), 산성염료, 80×120cm, 2002 …………… 22
- 【작품 6】 망각(忘却), 견섬유(silk), 산성염료, 90×138cm, 2003 …………… 25
- 【작품 7】 그 곳에, 견섬유(silk), 산성염료, 90×128cm, 2004 …………… 27
- 【작품 8】 일상(日常), 견섬유(silk), 산성염료, 88×128cm, 2003 …………… 29

## 도판 목차

【도판 1】 Salvador Dali, 『La Persistance De Memoire』

oil on canvas, 26.3×36.5cm, 1931

【도판 2】 Rene Magritte, 『LoversⅡ』, oil on canvas, 54×73cm, 1928

【도판 3】 Giorgio De Chirico, 『Melancholy and Mystery of a Street』

oil on canvas, 87×71.4cm, 1914

【도판 4】 Vincent Van Gogh, 『The starry night』, oil on canvas,

73.7×92.1cm, 1889

【도판 5】 Wassily Kandinsky, 『composition VIII』, oil on canvas,

140×200cm, 1923

【도판 6】 김환기, 『10만개의 점』, 면에 유채, 160×272cm, 1973

【도판 7】 Henri Matisse, 『The Bees』, gouache on paper,

101×240cm, 1948

# I. 서론

## 1. 연구 목적

작가에게 있어 예술 활동은 진솔한 자기 자신의 발견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예술적 삶을 대변하는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은 그들 각자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작품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모습과 의미를 부여해 왔다.

이러한 예술표현에 있어서 기억은 예술작품의 배경이 되며 작가의 경험과 기억을 근간으로 하여 그 환경에서 얻어지는 소재들을 통해 구체적, 형상적, 또는 상징적 의미의 창조로 발전시켜 왔다.

본 논문은 감정과 정서에 근간이 되는 기억에 관한 조형화 연구를 통하여 본인의 내면에 있는 기억의 이미지를 새롭게 표현하고 상징화 하고자 한다.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억의 이미지는 연속된 시간을 품고 있는 함축적 의미로서 인간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고 현재를 결정 지워 주며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억이다.

본 논문은 기억의 이미지를 발전시키고 조형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감성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감성표현의 독창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조형화 된 예술적 표현을 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기억은 감각을 통한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인간에게 있어서 기억은 과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억을 형성하는 과거는 단지 지나간 시간이 아닌 그 속에서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본인은 인간의 삶 속에서 시간적, 공간적 거리감을 초월하여 축적되어진 기억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이미지를 조형화 하고 상징화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인 작품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기억의 의미를 고찰하고 본인의 심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기억이미지의 조형적 표현과 원리를 파악하였다.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미지를 선과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하여 시간과 공간성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었고 기억이미지 재현의 표현적인 특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여러 가지 색상과 면의 중첩을 통하여 염색 작업의 특징을 살렸고 강한 이미지의 색과 대비를 이용하여 생명력을 지닌 기억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반복적 구성 안에 변화를 주어 시간적 의미를 주는 동시에 연속적인 변화의 의식으로서의 기억을 조형화 하여 표현하였다.

## Ⅱ. 본 론

### 1. 기억의 고찰

#### 1) 기억의 의미

기억이란 과거에 형성된 행동이 얼마간의 기간 동안 보유되어 그 다음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활동작용이라고도 하며, 경험에 의하여 얻은 내용들을 저장, 보존하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들이 매일 아침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의심하지 않는 개인적 정체감은 바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기억의 연속성에 근거한다.

이러한 기억은 독립적 범주로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을 가진다. 학습된 사고, 행동, 의식 작용 등, 행위만이 아니라 반사 작용 심지어 유전인자까지 기억의 영역에 포함된다.

말하자면 오감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받아들이는 모든 각인이나 흔적을 망라하여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 전체가 기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sup>1)</sup>

우리들은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기억하고 물건을 어디다 놔두었는지를 망각하고, 오래된 친구들을 재인식하며, 혹은 해변에서의 즐거운 날을 회상한다.

이 모든 것들이 기억에 의한 것들이다.

이러한 기억에 대해 인지심리학자 에킨슨(Atkinson)과 쉬프린(Shiffrin)은 기억을 세 가지 유형인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

1) 최민, 「기억과 망각」, (문화과학, 2000), P.205.

감각기억은 시각, 청각, 촉각 및 미각 등의 감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입되어 극히 짧은 시간동안 저장되어 있는 기억유형으로 우리가 책을 본다거나 음악을 들을 경우와 같이 그 순간엔 감각적으로 의식하고 있으나 곧 사라져 버리는 경우를 말한다.

단기기억은 극히 짧은 시간동안 그 경험내용이 의식화 되어 잠시 동안 기억되는 유형을 말하는데 전화번호부에서 번호를 찾아 다이얼을 돌린 후에는 곧 그 번호가 생각나지 않는 등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장기기억은 단기기억에서 파지된 정보가 장기기억으로 전이되어 저장되는 기억을 말하는 것으로 장기간 혹은 일생 동안 정보를 저장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기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기기억을 뜻하는 것이며, 기억이 잘 안난다는 것은 곧 장기 기억화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베르그송(Henri Bergson, 1895-1941)은 기억에 관하여 ‘정신적 기억’과 ‘습관적 기억’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습관적 기억은 암기에 의한 책의 내용이나 행동의 순서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과거를 현재의 행위에 연결할 수 있으며 순수기억은 과거라는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상기를 통해 재생되어 나아갈 수 있는 표상으로서 기억을 말한다. 이것은 습관적이 아니라 추억으로 존재하게 되어 우리의 현재 삶에 추억으로 계속 살아남게 된다.<sup>2)</sup>

또한 그리스 철학의 경우 소크라테스 이후 기억은 이념들이 간직되는 공간, 단순한 형상의 오류에서 인간이 벗어 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았으며 심리학자들은 기억을 체험이 소화되거나 소화되지 않은 공간 즉, 체험된 것의 짐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할 경우 침입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억에 대한 정의는 역사, 철학, 인류학, 심리학, 정보학 같은 학문에서

---

2) 소광희, 「시간의 철학적 성찰」, (문예출판 2001), P.733.

도 서로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

기억은 공간성, 시간성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축적되어지며 단순한 사물이나 외형적 실재만이 아닌 이미지, 개념, 상징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것을 현재화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며 무의식적으로 축적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현재화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기억이라 부를 수도 있다.

이러한 기억은 감정적, 심리적 경험을 되살려 내며 인간의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삶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 기억의 표출

인간은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기억나게 하고 추억하는 것들(사람이든, 사물이든)은 인간의 의식 속에 저마다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을 구성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주체를 깨닫기도 한다.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에 의하면 최초의 기억은 인간의 정신생활 속에 깊이 관류한다고 한다.<sup>3)</sup>

기억은 자신의 모든 한계나 모든 상황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며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들만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가지는 순차적인 구성 외에 각각의 개인들에 의해 재구성되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다.

---

3) Alfred Adler/Hertha orgler 「아들러 심리학 해설」, 설영환역, (부산선영사, 1992), P,17.

하지만 간혹 때로는 대상의 중요성 보다는 얼마나 과거의 그 시간이 감격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가가 기억의 대상을 결정하기도 하며 이는 형상학에서 말하는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의 구조 속에서 의미 있게 각인되는 시간<sup>4)</sup>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순차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로 기록될 수 있는 기억들이 있는 반면 특정한 시공과 무관하게 불쭉불쭉 의식의 수면위로 떠오르는 기억의 편린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감각인식에 드러나는 시,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개인적 자각에 의존해 있다. 즉, 우리가 현재라고 지각하는 것은 예기(豫期)의 색조를 띤 생생한 기억(Memory)의<sup>5)</sup> 가장자리인 것이다.

기억은 과거의 산물이라는 명사적인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행위적 의미도 함께 가진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 낼 수도 있고 기억해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기억하고 있는 것과 애써서 기억해 내는 행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단순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현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과거의 의식 속에 묻혀 있어 아직껏 의식의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는 것, 기록들의 저장고에 그저 쌓여있는 자료의 일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고 애써 기억해 낸다고 할 경우의 기억한다는 것은 능동적 행위이며 의지의 반영이다. 우리에게 기억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정신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억은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며 현재와 공존하게 되고 인

---

4) 김영민, 「형상학과 시간」, (도서출판사 1994), P,50.

5) 라틴어의 memoria가 그대로 원 저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단지 ‘기억’이라 번역하지 않았다. 그것은 memoria가 단지 과거를 연상하는 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및 미래에 관계된 태도를 가능하게 하고 인간의 시각적 가능성의 전체를 표상하기 때문이다.

간은 과거의 기억을 거울로 삼아 현재의 자신을 규정짓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지향할 수 있게 된다.

기억의 각 흔적은 다른 흔적 때문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서로 유사한 흔적들은 접촉하며 서로를 강화 하거나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대신하기도 한다.

순간적인 지각은 기억을 부르고, 기억을 형상화 하고 활동적으로 만든다. 우리의 기억은 현재의 지각을 새롭게 창조하거나 혹은 오히려 이것을 배가(倍加)시킨다.

이러한 지각 속에서 기억은 과거에서 현재로의 확장(擴張), 진전(進展), 진정한 진화(進化)로서 더욱 더 확실하게 드러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체험에 의해 형성되어진다.

기억은 현재의 과거로의 후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현재로의 진전에 있는 것이며 현재라고 불리는 심리적 상태는 직접적인 과거의 지각인 동시에 직접적인 미래의 결정이다.<sup>6)</sup>

결국 인간은 개체적 삶 속에서 시간의 경험을 통해 현재에 이르며 과거의 '기억'을 통해 경험을 구체화 시켜 인식한다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억' 이란 시간적 과정을 통해 도출 되어지나 '기억' 그 자체는 비 시간적 정신작용인 것이다.

---

6) Henri Bergson, 「물질과 기억」, 홍경실 역, (서울 교보문고, 1991). P,155.

### 3) 예술에 있어서의 기억의 상징성

예술은 ‘기억(記憶)’과 ‘경험(經驗)’ 이라는 두 개념에 의해 창출되는 인간 활동이다.

존 듀이(J. Dewey.1895-1952)가 “예술은 실제적인 인생경험 안에서 생긴다.”<sup>7)</sup> 라고 보았듯이 시, 공간의 개인적 지각은 ‘경험’ 이라는 무수한 사유(思惟) 속에서 파악되어 진다.

이처럼 ‘자의식(自意識)의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기억’들은 작가들로 하여금 ‘생(生)의 미감(美感)’ 과 ‘특수한 보편’으로서의 미적 지각을 이루는 가장 큰 토대라 할 수 있다.

예술은 자연적 산물이건 인공적 산물이건 간에 지각적 예상 또는 인간의 지각 활동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역동성의 양상들을 반영하는 에너지로 표현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술작품은 인위적 결과물로서 질서 있고 균형 있는 그리고 응축된 형을 통해 역동적 양상을 나타낸다.

여기서 ‘응축된 형’ 이란 연상 작용을 위한 상징적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각의 연상은 상징적 이미지로 구체화 되어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나, 감각적 미감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사물을 볼 때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고 있지 않는다는 말이 되고, 보고 있는 순간에도 아무런 소감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하나의 인상으로 무의식중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sup>8)</sup>

기억은 말 그대로 의식 속에 경험된 상징이다. 이러한 경험된 상징은 하나 이

7) 조요한, 「예술철학」, (서울 경문사, 1995), P,127.

8) 최정호, 「관점에 대하여」, (서울 공간문화사, 1997), P,62.

상의 미감과 다의적 해석을 가지며 인간의 정신작용을 이끌게 한다.

미술사에서도 이러한 기억이나 잠재의식들이 작품에 반영된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는 유년시절의 기억인 ‘독수리의 환상’이 성인이 된 후 그의 심리상태와 작품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이야기 했다.

“이미 훨씬 이전부터 나는 독수리에 대해서 깊은 흥미를 가질 운명을 타고 난 듯 하다. 왜냐하면 딱 어렸을 적 요람에 누워 있을 때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 꼬리로 나의 입을 여러 번 친일이 기억되기 때문이다”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죽은 형과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고향의 하얀 압벽, 심연의 바다, 거칠고 황량한 해변에서 느낀 신비감에 대한 그의 유년시절 기억이 계속 작품 속에 등장하는데 바로 그의 경험적이고 기억적인 이미지를 암시해 주는 것이다. <도판1>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가 열네 살 때 잠옷으로 얼굴이 가려진 채 발견된 어머니의 익사체는 그의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가려진 얼굴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쳤다. <도판2>

지오르지오 데 기리코(Giorgio de Chirico, 1888-1973)는 급격한 사회변화의 시기였던 20세기 초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그리스 생활에 대한 향수와 기억 등이 오랫동안 남아 그의 (Melancholy and Mystery of a Street) <도판3> 과 같은 작품에 고독과 불안, 낯설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사진작가인 크리스티앙 볼탄스키(Christian Boltanski, 1944-) 의 작품 역시 기억과 정서에 기반 한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내 자신에 대한 발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내 기억 깊은 곳에 닿고자 하는 나 개인의 역사적 탐구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지나온 시간에 대한 기억과 망각, 인간들의 운명적

물음에 연계되어 있다.

이상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에 있어서 작가가 만들어 내는 다양하고 새로운 이미지들은 많은 경우 그의 개인적 상징의 결과물들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상황들과 경험들이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기억은 어느 순간에 현재의 경험 속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풍부한 자아를 완성시키게 된다. 즉, 한 개인의 무의식속에 내재하는 기억의 편린들은 심리적 고착과정을 통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고, 나아가 작품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본인에게 있어서도 경험과 기억은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의 출발점이며 감정의 근원이다.

시간이 흐른 뒤 남겨진 흔적 속에서 한 겹 한 겹 기억들을 들추어내고 잠시 잊혀졌던 삶의 체험들을 발견함으로써 과거에 존재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이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기억은 갑자기 얻어지거나 떠오르는 고립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현실 상황과 연결된 고리 속에서 연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기억의 이미지들은 순간의 상황이나 지나간 이야기들을 함축하는 하나의 상징물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기억을 형성하는 과거의 시간들은 지나간 시간이 아닌 현재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물로서 과거 속에서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심리적 시간이다.

본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기억이미지의 형태들은 사진이나 기록물을 상징하는 동시에 미래에 기억되어질 현재이며 현재에 기억되는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인 기억행위는 자아에 대한 끊임없는 재확인을 하고자 함이며 본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이다.

## 2.이미지의 조형적 표현

본 연구의 주제는 ‘기억이미지를 통한 조형표현 연구’로서 본인의 기억에 관한 감성표현이다.

본인은 이러한 감성표현에 적합한 표현 방법으로서 네모의 형태, 직선, 곡선과 같은 기하학적 소재를 하나의 상징으로 이용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모지, 사진, 앨범 등을 통해 과거를 기억해 내듯이 화면에 등장하는 기하학적 형태는 과거를 기억해 내고 미래를 제시해 주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 그 기억은 완전한 형태의 기억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과거의 기억이미지는 시간의 격차를 두고 현재에 반추되어지며 새로운 이미지 형성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본인은 기억이 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애매성을 불완전한 네모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선을 이용하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미지와 무한한 공간 속의 시간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선은 시각적인 움직임에 갖는 동시에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요소로서 선의 굵고 얇은 정도, 곡선의 표현만으로도 그림 자체에서 감성적인 표현을 얻어 낼 수 있다. <도판4> , <도판5> , <도판6>

본인 작품에서의 선은 과거의 이미지를 현실로 전환하고 지나간 흔적, 시간, 기억, 추억, 회상 등 잠재되어진 기억의 이미지를 표출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면과 선들을 적당히 겹치고 나열함으로써 중첩의 효과를 가지고 이러한 중첩의 공간을 이용하여 시간성과 공간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또한 반복적 구성을 통하여 기억의 인식은 멈추어져 있는 시간이 아닌 사고의 변화의 시간 안에서 자의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반복이라는 것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요소의 대상을 둘 이상 배열하는 것으로 어떤 사건과 사건사이, 형태와 형태사이, 공간과 공간사이에 대한 패턴의 연속이며 율동적인 회전을 뜻한다. <도판 7>

본인작품에서 나타나는 반복, 중첩의 효과는 하나의 감정, 하나의 움직임이 아니라 중복되는 이미지, 무한한 상상의 공간을 통해 시간적 공간감을 유도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반복행위는 시간과 망각으로부터의 도피를 위한 되풀이되는 기억을 내포하기도 하며 연속적 변화의 의식으로서의 기억을 의미하고 있다.

평면 공간 안에서의 반복은 시간성을 가지며 반복을 통한 효과는 내적내용의 변화와 외적표현의 변화사이에 시(時), 공간(空間)을 느끼게 해주는 행위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시간성, 공간성의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정해진 시간개념이 아닌 과거일수도 있지만 현재에 존재하는, 현재이지만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위와 같은 감성표현에 적합한 표현방법을 연구함으로써 본인에게 적절한 내면적 언어를 발견하고 본인을 완성해 가는 기억세계를 찾고자 한다.

### 3. 작품제작 과정 및 설명

#### 1) 작품제작 과정

본인은 작품표현을 위한 제작방법으로 염색을 선택하였다. 염색할 재료로는 천연 섬유 중에서 동물성 섬유인 견 섬유(silk)를 선택하였는데 견직물은 촉감이 부

드럽고 광택이 좋고 산에 저항력이 강하므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표현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납방염을 이용하였다. 납방염은 강력한 방염력이 있으며 변화 있는 염색물을 얻을 수 있고 작가가 구상한 작품의 표현이 가능한 염색법이다. 같은 작업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표현하면 다른 회화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염료로는 산성염료를 사용하였는데 산성염료는 수용성으로 색상이 선명하고 채도가 높으며 일광 견뢰도가 높고 열기에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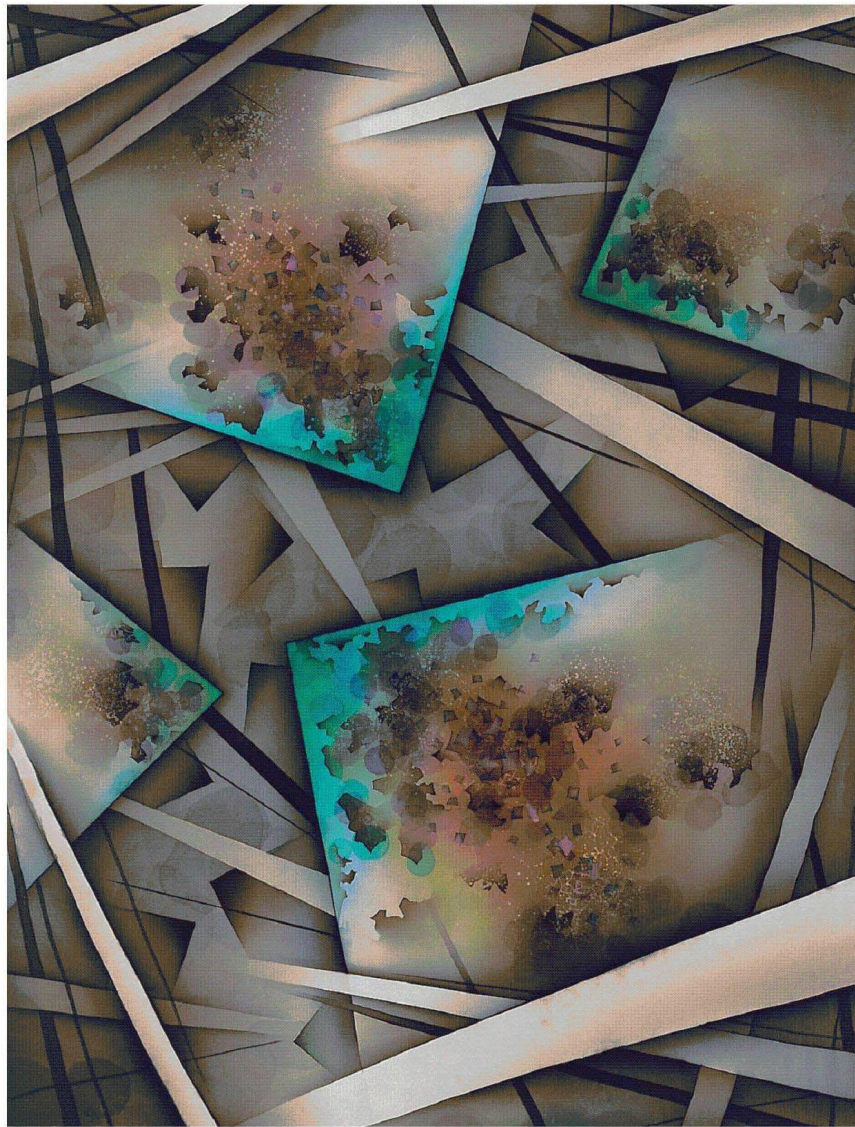
작품제작에 앞서 염색의 전 처리 과정으로 정련이 있다.

정련은 염색할 천에 묻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무기세제(탄산소다, 가성소다, 붕사, 규산소다), 비누, 고급 알코올세제 등이 정련제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염색하고자 하는 천을 세제가 풀어져 있는 미지근한 물속에 30-40분간 충분히 잠군 뒤 여러 번 잘 헹구어 구김이 가지 않도록 틀에 팽팽하게 고정시켜 말린다.

다 마른 천위에 밑 그림을 그린 후 파라핀을 이용하여 방염하고 염액을 칠하며 원하는 농도와 색상을 표현한다. 납방염의 후처리는 방염한 천에 묻은 납의 양이 많을 때는 먼저 납을 털어서 일부는 제거하고 나머지 납은 신문지를 이용하여 다림질 하여 제거한다. 이 과정을 거쳐 납이 충분히 제거되면 염색물의 위아래에 신문지를 덮고 말아서 증열기에 넣고 100℃ 이상의 고온에서 1시간 30분가량 증열처리하고 수세하여 건조시킨다.

## 2) 작품 설명

### 【작품 1】 기억-시간 속으로



견섬유(silk), 산성염료, 납방염 , 78×99cm, 2003

【작품 1】 기억(記憶)-시간 속으로 (2003)

재료: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납방염

크기: 78×99cm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시간(時間)을 가지며 또 나름대로 각각 그 시간을 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일부분만이 문제가 되며 과거와 미래에 속하는 시간에는 무관심하게 된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와 같은 시간의 경과 없이는 변화나 생성, 성장 사멸 같은 현상은 있을 수 없다.

본인은 작품을 통하여 시간에 쫓기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며 과거의 여유 있었던 시절을 회상함으로써 삶과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화면에서 보여 지는 두 개의 불완전한 네모는 서로를 마주보며 대등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현재와 과거를 의미한다. 현재에서 지나간 과거가 결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닌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임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붉은색(red) 와 청색(blue)의 보색을 이용하여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더 강조하고자 하였다.

면에 가까운 굵은 선들은 시간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미지를 의미한다.

흰색(white)에 가까운 굵은 선들은 현재에 수면위로 떠올라 재창조 되어지는 기억의 이미지들이며 어두운 선들은 무의식속에 잠재되어진 기억을 뜻한다. 또한 번진 듯한 얼룩을 이용하여 희미한 기억의 잔영과 세월의 깊이 감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2】 잔상(殘像)



견섬유(silk), 산성염료, 납방염, 94×138cm, 2003

【작품 2】 잔상(殘像), 2003

재료: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납방염

크기: 94×138cm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이전의 경험이 떠오르는 심상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러한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희미하게 나타나기도 하며 구체적인 대상이 시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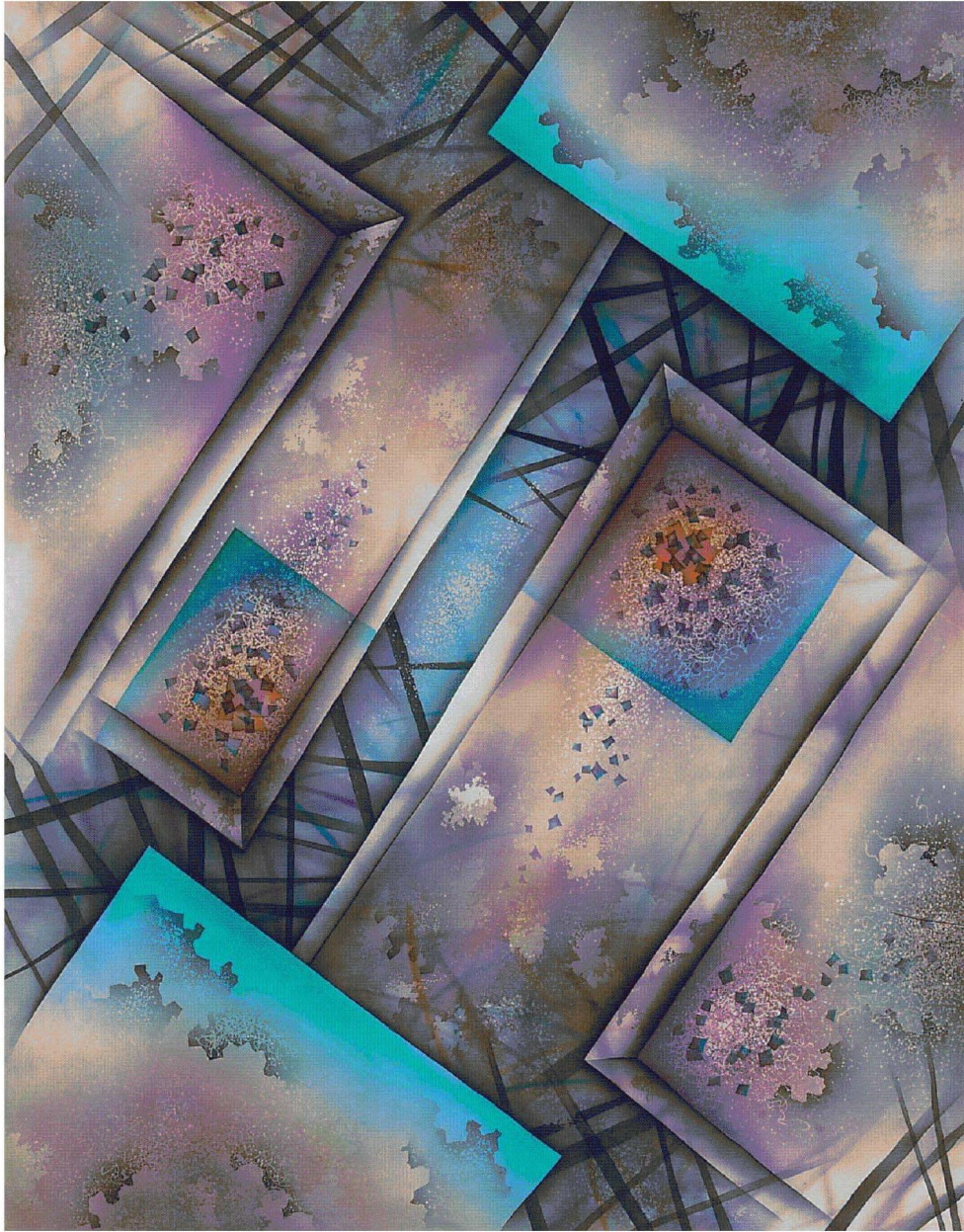
작품의 중앙에 표현된 면은 기억의 틀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과 선, 사각형의 형상들은 이러한 기억의 잔상들이 도출되어 나타나는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붉은색(Red)을 띤 커다란 덩어리는 무수한 기억의 잔상들이 축적되어진 이미지이며 그 안에 청색(Blue)의 작은 사각형들은 도출되는 기억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무수한 잔상들은 하나하나로 볼 때는 매우 미흡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축적되어 내면적, 주관적 심리를 형성하게 된다.

화면전체에 뿌려진 흐릿한 점들은 수없는 반복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연속적 변화의 의식으로서의 기억을 의미하며 그 기억 안에 존재하는 자아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작품 3】 기억의 연속



견섬유(silk), 산성염료, 납방염 , 80×100cm, 2003

【작품 3】 기억의 영속 (2003)

재료: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납방염

크기: 80×100cm

‘하루하루는 지나가고 나는 머무른다.’

우리의 현재는 지나간 과거와 다가 올 미래를 포함하는 지속의 일부이다.

과거는 현재에 일어나는 ‘기억’이며 미래는 현재에 일어나는 ‘기대’로서 과거나 미래는 자연적 시간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속하는 시간인 것이다.

본인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기억의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삶의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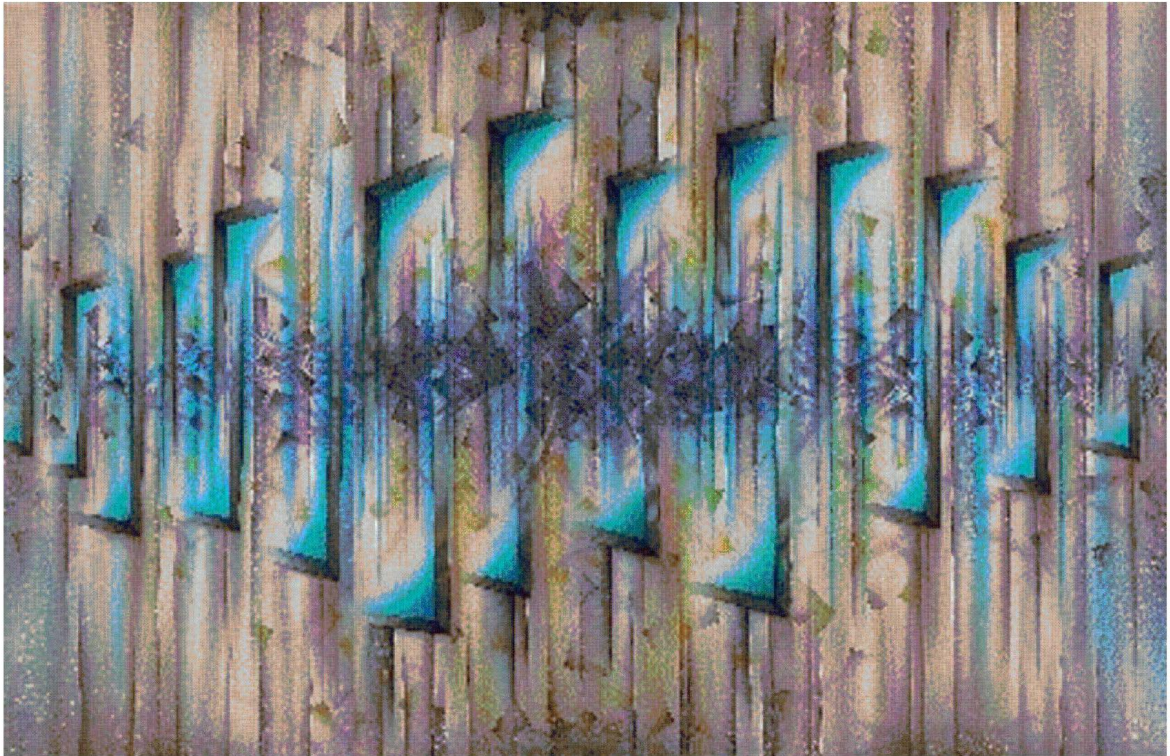
작품 속에 표현된 불완전한 네모의 형상은 위-아래, 좌-우가 서로 대칭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을 의미한다.

좌-우 마주 보고 있는 네모의 형상들은 서로 겹쳐져 상호 보완적으로 화면을 채워 주고 있는데 기억의 축적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화면전체에 표현된 흐릿한 자국들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본인의 노력의 흔적이며 생각 속에 있는 형상이 실제로 환원되어지는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화면 중심부에 표현된 겹쳐진 청색(blue)의 형상은 현재에 새로운 기억이 생성되어 삶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축적되어진 삶의 부분들은 또 다시 본인의 미래에 존재하게 될 과거의 기억으로 남게 된다.

【작품 4】 화양연화(花樣年華)



견섬유(silk), 산성염료, 납방염, 175×260cm, 2004

【작품4】 화양연화(花樣年華), 2004

재료: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납방염

크기: 175×260cm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꿈꾸며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순간은 내면의 고독, 방황, 혼돈의 시간을 거쳐 수많은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나타날 때 더욱더 소중한게 느껴지며 오랫동안 추억하며 그리워하게 될 순간으로 남게 된다.

작품에서 보여 지는 수많은 세로선은 반복되는 일상을 표현한 것이며 그 속에서 드러나는 두께를 가진 사각의 형상들은 순간, 순간 느끼게 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나타 낸 것이다.

이러한 청색(blue)을 띤 사각의 형상들은 높낮이를 다르게 하며 일정한 반복을 가지고 리듬 있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추억이며 배경과 함께 보이는 작은 사각의 형상들은 내면의 방황과 고독을 통해 느꼈던 경험과 감정의 상징적 표현이다.

화면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곡선과 사각의 형상들은 수없이 반복되고 겹쳐지는데 이는 최고 정점에 이르게 되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곡선은 빛의 터치를 살려 표현함으로써 화면의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위와 같은 작업과정을 통하여 평면작업 안에서 보여 지는 느낌보다 깊이 감을 더욱 살리고자 하였으며 곡선과 면의 겹침, 반복에서 오는 중복, 교차현상을 이용하여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표현을 더욱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작품 5】 흔적(痕迹)



견섬유(silk),산성염료, 납방염, 80×120cm, 2002

【작품 5】 흔적(痕迹), 2002

재료: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납방염

크기: 80×120cm

세상의 모든 물상들, 자연에서 경험한 일들, 삶의 일상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변형되어 오랜 사진처럼 흔적을 남긴다.

우리의 기억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없어지기도 하며 흔적위에 또 다른 흔적이 생겨나기도 한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단편적이고 빠르게 경험되기 때문에 언제나 중요하게 느끼지는 것은 아니며 간혹 생각나더라도 그것을 기억해 내야 할 필연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곧 잊혀져 버리게 된다. 따라서 그것들의 소중함이나 가치는 실제로 그 기억의 흔적들이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나 영향보다는 더 미미한 정도로 인식되어진다.

이러한 기억들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남기려는 시도 역시 우리에게 낯설지만 그 기억은 알게 모르게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현재의 정서에 간간히 떠오르는 아픔이나 애잔한 그리움, 추억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품에서 화면의 흐름을 이끄는 두께를 가진 세 개의 사각 형상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는 이중적 공간이다. 또한 황색(yellow)의 따뜻한 색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간이 삶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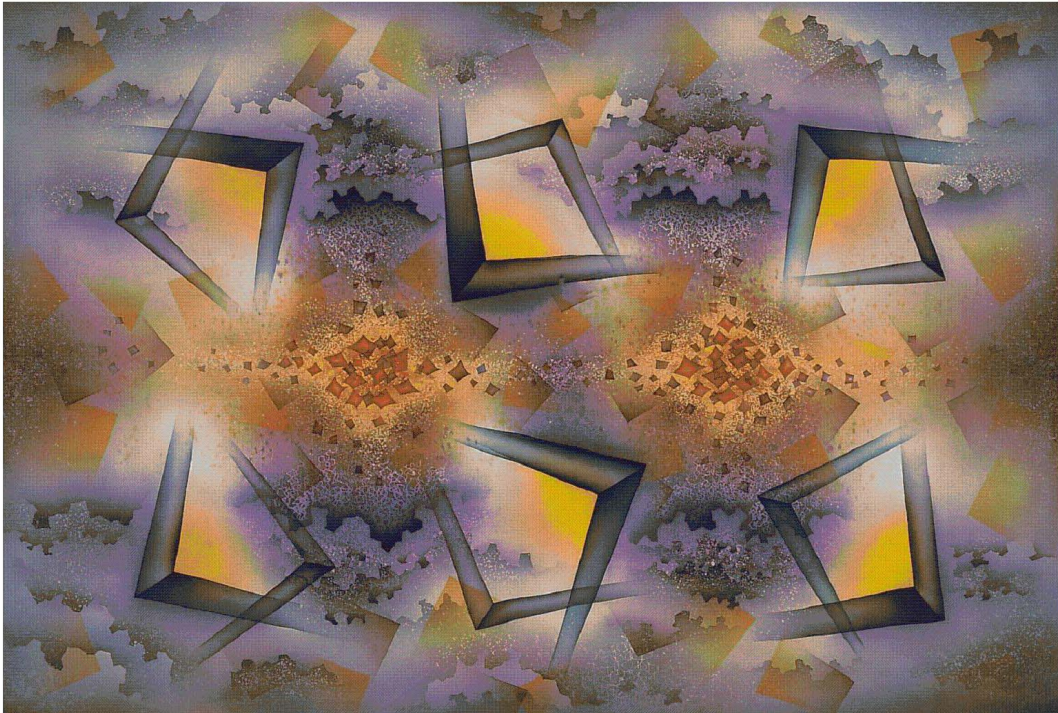
화면 중앙에 작은 네모가 겹쳐져 이룬 집중된 표현은 현재의 삶이 과거의 영향을 받으며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잊혀질 과거의 흔적이기도 하다.

회색(Grey)톤의 배경은 무의식속에 잠재되어 있는 기억의 이미지가 축적되어

있는 심리적 공간이며 직선을 겹치고 교차시켜서 시간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직선은 흑색(black)으로 표현하여 심리적 공간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자 하였다.

【작품 6】 망각



견섬유(silk), 산성염료, 납방염, 90×138cm, 2003

【작품 6】 망각(忘却), 2003

재료: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납방염

크기: 90×138cm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은 언제나 함께 공존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부딪히며 감정적으로 직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망각을 통해 우회하기도 한다.

그러나 잊어버린다는 일은 의식적으로 원하는 특정 기억만을 잊어버린다거나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사건을 잊도록 선택 될 수 없다.

망각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잊혀지지 않길 원하는 일들도 그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완전히 잊혀지기도 하며 아픔, 고통, 괴로움 역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희석되거나 잊혀지게 된다.

우리는 망각함으로써 현재, 순간, 그리고 기다림까지도 더욱더 소중히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망각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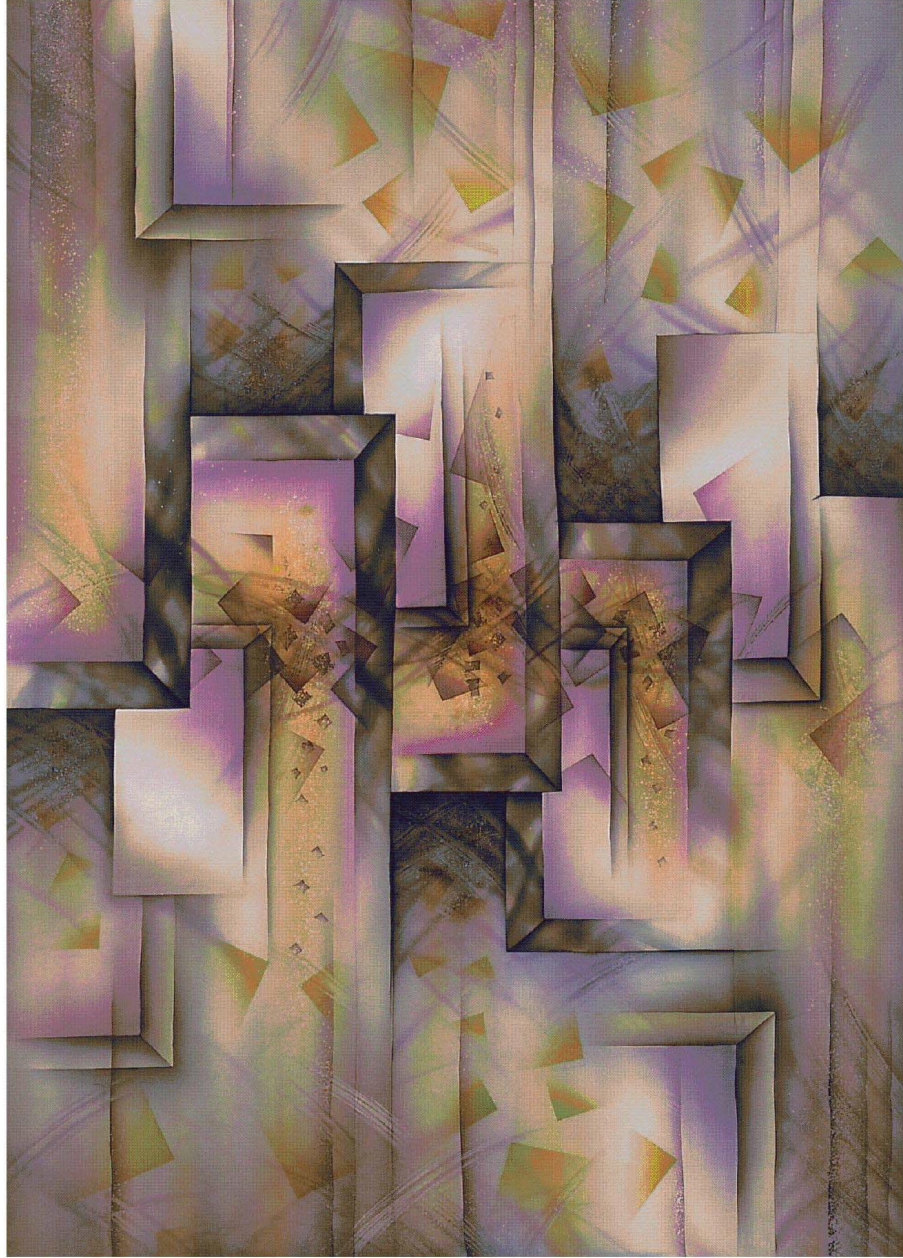
본인도 모르게 잊혀지는 술한 현실 속에서 뇌리 속에 깊게 남는 무엇인가가 있다며 그 기억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다.

화면에서 황색(yellow)을 띤 여섯 개의 사각형상은 시간과 공간을 잃고 정지된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잊혀진 기억을 의미한다.

이 사각의 형상 위에 마주보며 겹쳐진 형상의 틀은 과거의 기억이 점점 퇴색하며 자기 색을 잃고, 자신의 자리를 잃고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황색(orange)의 작은 사각형들은 축적되어진 기억으로 현재에 재생되어 새롭게 창조 될 변화의 의식으로서의 기억을 의미한다.

【작품 7】 그 곳에



견섬유(silk), 산성염료, 납방염, 90×128cm, 2003

【작품7】 그 곳에, 2004

재료: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납방염

크기: 90×122cm

현대의 물질문명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재의 시간들을 해체하면서 지나간 과거속의 진실 된 삶과 그 주변 모든 것들을 동경하며 그리워하곤 한다. 이는 인간의식의 잠재된 순수성의 회귀를 통해서 잊혀져 버린 공간들의 아득한 기억을 간직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이다.

이러한 회귀심리(回歸心理)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정신적 고독, 불안, 소외와 상실 고뇌와 갈등을 어느 정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잊혀져 버린 공간은 실재 경험했던 과거만이 아닌 돌아가고 싶은 곳, 늘 동경하는 꿈의 안식처와 같은 이상향이 담긴 상상속의 공간일수도 있다.

보라색(violet)이 사용된 세로의 긴 형상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공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기억과 경험, 꿈과 희망이 담긴 나만의 공간을 의미한다.

중앙에 황색(yellow)을 사용하여 순수에 대한 동경을 따뜻함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작은 사각의 형상들은 동경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음을 상징화 한 것이다.

배경전체에 표현된 곡선의 흐릿한 표현은 경험했던 과거만이 아닌 정의 내리기 어려운 시간의 개념이며 이상향을 찾고자 하는 자아의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작품 8】 일상



견섬유(silk), 산성염료, 납방염, 88×129cm, 2003

【작품8】 일상(日常)

재료: 견섬유(silk), 산성염료

기법: 납방염

크기: 88×129cm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앞만 보고 달려야만 하는 질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은 반복적이고 수동적으로 되기 쉬우며 일상의 모든 것들을 우연에 불과하며 우리에게 주목받지 못한다.

또한 일상에서 우리가 순간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 상황들은 너무나 작고 섬세해서 그만큼 가볍고, 지워지듯 우리의 머리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는 거리의 일상사, 생활의 단편들 하나하나가 축적되어 삶을 이루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화면에서 보라색(violet)을 띤 사각의 형상은 거의 변화 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기억들이 숨어있는 시간들로 연결시켜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며 흑색(black)으로 사용된 이 공간이 기억들이 숨어 있는 내면적, 심리적 시간이다.

화면전체에 표현된 청색(blue)을 띤 작은 네모의 형상들은 일상에서 겪게 되는 무수한 경험과 감정들을 표현한 것인데 이러한 기억들은 일상 저편의 심리적 공간 속으로 축적되기도 하며 망각 속으로 끝없이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 Ⅲ. 결 론

예술이란 재현이 아닌 표현의 수단으로 예술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 된다. 이러한 경험은 감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뿐 만아니라 예술에서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예술작품은 느껴질 수 있는 일체의 감정을 표현한 이미지들이며 개인적인 탐구나 경험된 삶의 표현을 그려낸 결과로서의 예술작품은 인간과 삶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을 진행할 때 예술가는 이런 주관적인 영역을 객관화해서 형상화 하는데 이때 표현되는 것은 그들의 내적 세계의 감정이다. 따라서 표현은 이러한 혼란한 감정을 명료화 한다고 볼 수 있다.

감성의 표현에 있어서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 기억 등은 무엇보다도 근본이 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본인은 기억에 대한 고찰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억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축적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과정을 추상적 이미지로 조형화 하였다.

여기서의 '기억'이란 단순히 경험되어지는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더 확대되어 인간의 역사성이라는 거대한 영역을 포함하는 배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표현방법에 있어 본인의 감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기법을 모색하여 사람들과의 공감을 함께 얻고자 하였다.

기억의 이미지는 선, 네모와 같은 기하학 형태로 상징화 하였고 반복, 중첩을 통해 평면적 화면 안에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살려 보다 효과적으로 감정과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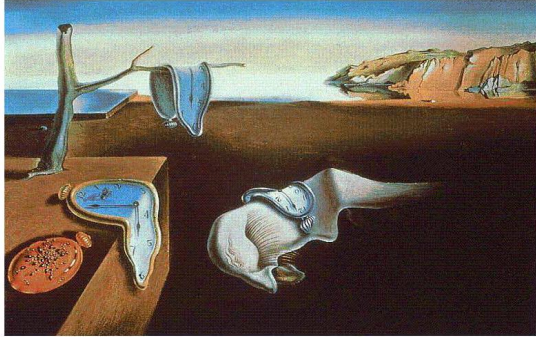
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편적 의미에서 인식해 왔던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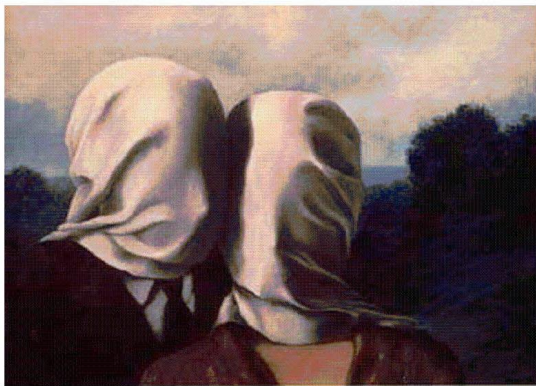
본인은 앞으로의 작업에서 이러한 과정을 경험들을 발판으로 하여 보다 함축적이고 변화 있는 조형형식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본 작품의 연구가 감상자들에게 묻혀져 있던 감정과 기억을 일깨워주며 인간다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정신적 풍요로움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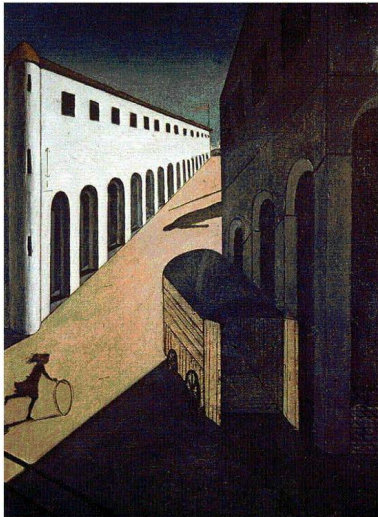
## 참 고 도 판



『도판1』 Salvador Dali,  
『La Persistence De Memoire』 ,  
oil on canvas, 26.3×36.5cm,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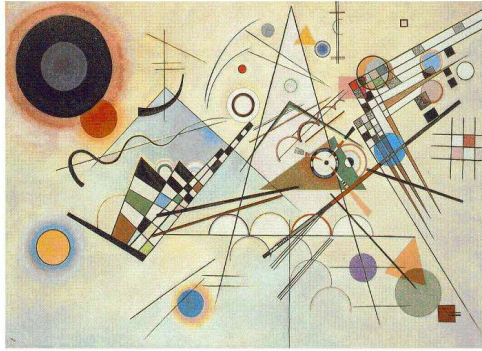
『도판2』 Rene Magritte, 『Lovers II』  
oil on canvas, 54×73cm, 1928



『도판3』 Giorgio De Chirico,  
『Melancholy and Mystery of a Street』  
oil on canvas, 87×71.4cm, 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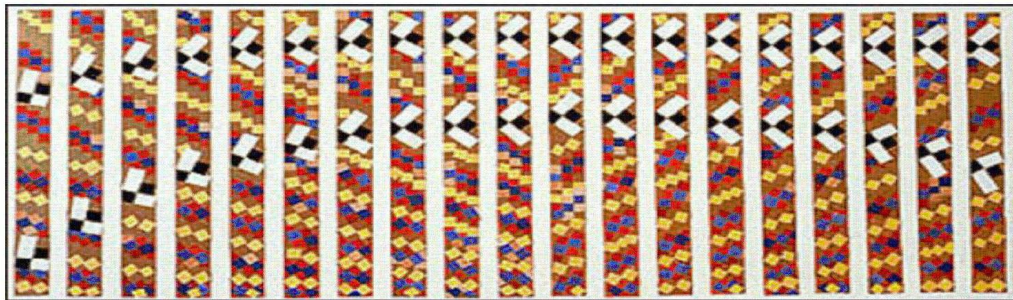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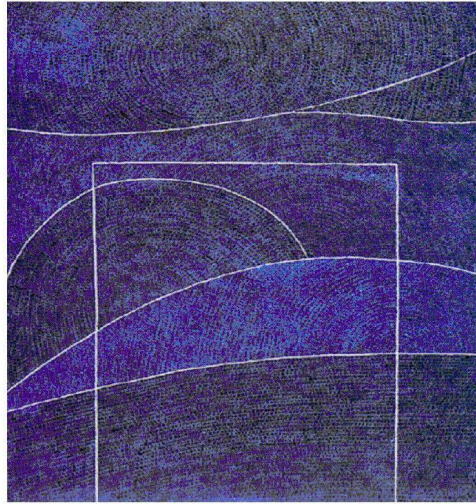


『도판4』 Vincent Van Gogh,  
『The starry night』 , oil on canvas  
73.7×92.1cm, 1889



『도판5』 Wassily Kandinsky  
『composition VIII』, oil on canvas,  
140×200cm, 1923

『도판 6』 김환기  
『10만개의 점』, 면에 유채  
160×272cm, 1973



『도판 7』 Henri Matisse, 『The Bees』, gouache on paper, 101×240cm, 1948

## 참 고 문 헌

### 【단행본 및 외국문헌】

- 김영민, 『형상학과 시간』, 도서출판사, 1994
-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 지성사, 1991
- 소광희, 『시간의 철학적 성찰』, 문예출판, 2001
- 수잔 K.링거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길주 역, 을유 문화사, 1992
- 조요한, 『예술철학』, 서울 경문사, 1995
- 존 듀이, 『예술론』, 윤병재 역, 도서출판 샐론, 1986
- 최민, 『기억과 망각』, 문화과학, 2000
- 최정호, 『관점에 대하여』, 서울공간문화사, 1997
- 최정훈, 이훈구, 『심리학』, 법문사, 1993
-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1979.
- Alfred Adler/Hertha orgler, 『아들러 심리학 해설』 설영환 역,  
부산 선영사, 1992
- Henri Bergson, 『물질과 기억』, 홍경실 역, 서울 교보문고, 1991

### 【학위논문】

- 김미리, 『기억의 상징성에 관한 조형적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3
- 이종은, 『기억의 표상으로서 사물을 주제로 하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2000
- 이주영, 『점, 선, 면, 형에 있어서 시 지각을 통한 조형성 연구』, 동국대 대  
학원, 1997

## **ABSTRACT**

**The study on Molding Expression by "Memorizing Image"**

**- Centering around My Dyed Work -**

**Ryu, Kyung Sook**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acknowledgement of human being is formed on the foundation of memory. He or she has respectively the unique memories to distinguish human from other animals on the earth and such a memories affect human life sense & its expression to a large extent.

Artists also express their art works on the basis of their memory inherent in the depth of their inner beings. Art world such as this is the outcome of memory storage only they have in society, culture and history through the past.

This thesis is supposed to take the direction to which writer's works make their way through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memories which are the results of close studies & analysis of substantial & formative aspects of writer's works.

The concept of memory dealt with in this study is a kind of dynamic memory which enables forming time & space, estimating the past, deciding

the present, planning the future, etc.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emotions & sentiments molded by sense in a variety of experiences come from human's memory, this study is to grant symbols through the formation of memories inherent deeply in human consciousness, at the same time, form the sympathy of memory, symbolize the images deployed in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in which countless memories inherent in subconscious, not memory as the suspended scene, and express the memory as the sense of continuous changes which takes place simultaneously with giving concept of time & space to something by repetition of line & geometrical shapes.

A kind of new image is expected to be expressed and symbolized and such a process will make a occasion to grasp and acknowledge the components molding the identity of the present self through a series of works with the contents such as mentioned above.